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단기 전략계획

ARKO · 비전 · 2010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 례

인사의 말 :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서 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동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에 대하여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비전 2010
3. 비전2010 - 전략목표와 과제
4. 경영목표

중단기 전략계획 참여인사

인사의 말 : 소망의 나무를 심다

저는 오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름으로 “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 사회 구현”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ARKO 비전 2010’의 이 선언은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우리의 믿음 위에서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의 소망을 밝혀 드러냅니다.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발족한 이후 6개월 동안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며 모색하여 우리의 뜻으로 모은 이 비전은 ‘활기찬 예술 현장’ ‘삶을 채우는 예술’ ‘미래를 여는 예술’을 그 핵심 가치로 가름했습니다. 여기서 12가지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32개의 핵심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사회가 예술 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 예술 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가 구현되도록 우리의 지혜와 열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뜻에는 예술과 문화야말로 경제 정치 사회 과학 모두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가치라는 우리의 믿음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고 뒤처지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왔음에도 우리에게 꿈을 꾸는 예술이 살아 있고 앞날을 바라보는 문화가 움직였기에 오늘날과 같이 힘차고 넉넉하고 희망 있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에 이르기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예술을 창조하는 자유와 문화를 일구는 열정이 우리 사회와 나라를, 우리의 삶과 정신을 앞으로 더 밀어주고 더 높이 끌어올리는 창의와 진보의 원천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문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삶을 보다 성숙하게 진전시켜주리라는 또 하나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장과 큰 발전을 이룩해왔고 지금 그 성과들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성장과 발전의 성급함이 우리의 정신을 곁돌게도 하고 마음을 외지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술이야말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알차게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과 이해와 예의의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자산이며 그것이 우리를 세련된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럼으로써 우리의 사회는 다양한 지향으로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정신적 가치는 활기차게 뻗어 자라고 그것의 예술적 문화적 성취는 화려하게 꽃피어날 것입니다. 이 힘있고 아름다운 사회는 우리의 정치경제적 삶을 다시 활달하게 키우고 우리의 문화예술을 더욱 싱싱하게 피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예술과 힘찬 문화에서 출발하여 더 높은 층위에서 새로이 자유로운 예술과 힘찬 문화를 만들어내며 우리의 성숙한 삶을 품위 있는 모습으로 올리고 창조적 미래로 밀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늘에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리의 앞날에 희망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21세기는 이렇게 맞아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유로운 예술을 통해 창의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풍요로운 예술 작품을 통해 삶을 성숙하게 향상시키는 것,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통해 사회를 열어가는 것, 이것들은 새로운 세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간적 공동체적 삶을 꽃피우며 앞 세기와는 또 다른 IT, BT의 디지털 문명 시대에 어떻게 교

양높은 시민문화를 고양할 것인가의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 양상과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자유와 창의, 열린 정신과 품위 있는 삶의 진정성은 결코 달라질 수 없을 것임을 이 자리의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미래의 삶을 위해 “예술인과 함께하며 모두에게 신뢰받는 예술위원회”가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거듭 다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봄날,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자라날 나무를 함께 심음으로써 그 다짐의 살아있는 표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성장과 함께 자라나 오늘의 우리의 뜻과 소망을 증거할 것입니다.

2006년 4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병익



서문 : 예술은 세상의 주변지대가 아니라 심장부에 속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다

지상의 풍경은 나날이 문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복개하천이 복원되고 육교가 철거되며, 개발의 자투리로 취급되던 공터들이 생명의 숨통을 여는 도시문명의 환풍기로 다시 태어난다. 시장에서는 문화상품과 지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며, 부의 생산과 유통도, 상품 광고나 사회적 계몽도 문화적으로 기획된다. 지난날 그토록 뜨거운 열정을 불렀던 정치적 해방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들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발전'이라는 말도 경제성장을 뜻하던 차원에서 '문화적 성숙'을 의미하는 쪽으로 빠르게 수정되는 중이다. 정치나 경제의 하위영역이던 문화가 어느새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적 실천을 담는 형식이자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문화의 세기를 앞장서 준비한 사회이며, 문화강국이 되려는 의지도 높다. 전통적으로 문화 숭배 사회인 데다 일정한 산업적 성취를 이룬 후에도 문화산업의 육성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민성'과 '몰가치'의 극복을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놓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나라가 문화적 낙후의 증상을 앓는 역설적인 현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돌이켜보면, 정부 수립 후 도합 아홉 개의 정권이 출현하여 정치 개혁, 부패 청산, 경제 발전, 빈부격차 해소 등을 외쳤지만 그것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일에서 오직 줄을 잘 서서 노른자를 먼저 차지한 자, '장미의 정원'을 먼저 선점한 자만이 최상의 선이고 도덕인 것처럼 돼버린 '결과 만능주의' 앞에서 질서와 윤리를 준수하며 밑바닥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시민들은 홀로 서 있다. 개혁이 만일 절차나 제도의 손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 사건이기보다 창조성과 지속성이 살아 있는 문화적 과정이어야 한다. 통치의 문화적 차원이 배제되어 버린 건조한 정치적 계몽주의가 어떻게 국민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인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화가 어떻게 해서 사회 발전의 근거가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국민적 논의가 너무도 부족했다. 한국의 정치 및 공공 논의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조급하고 과도한 정치적 경제적 구호 앞에서 무참하게 묵살되곤 했다. 국가발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특히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인 예술의 역할을 탐구, 평가, 확산하려는 까다로운 접근방법이 회피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오늘 감히 문화적 성장의 원천이 예술에 있음을 선언하며 그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술은 세상의 주변지대가 아니라 심장부에 속하는 것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적 관점의 결여가 분단 극복을 비롯하여 국가적 운명과 장래를 결정짓는 모든 과제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삶의 환희와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된다. 만약 전쟁이 나면 누군가는 파괴비용과 건설비용을 벌게 되지만 누군가는 삶의 중요한 실체들을 잃게 된다. 그 실체 하나 하나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인류로 하여금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

리고 그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예술에 의해서 지켜져 온 것이며, 예술과 함께 성장했고, 예술에 의탁하여 훈련되는 것이다.

예술은 세계를 해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를 제공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예술이 위축되면서 남긴 후유증이 있다면 그것은 ‘추상적 가치의 붕괴’일 것이다. 추상적 가치가 붕괴된다는 것은 낱낱의 개인들이 하나로 묶여서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운명을 지탱하는 꿈이 붕괴됨을 의미한다. 공동의 가치 지평을 잃은 사회는 그 속의 개인들이 꿈과 이상이 살아 있는 생애를 살려고 하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궁핍하고 추해지게 만드는 야만을 경험하게 만든다.

또한 예술은 사회가 갈 곳을 예비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누구나 부의 습득만이 삶의 목적인 듯이 살고 있지만, 부가 저절로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부가 애오라지 또 다른 부의 증식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소비를 통한 하급의 욕망을 해소하는 기회의 범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토대로 작용하는 가치관을 확보했을 때에야 비로소 소비로부터의 소외가 삶의 소외로 이어져버리는 몰가치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분명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의존할 수 있는 개인 자산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예술은 삶을 이해시키고, 세상살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고, 범죄와 폭력의 질서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는 길이다.

그리고 예술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의 전망에 개입한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다. 우리의 내면세계, 즉 출생, 삶, 사랑, 죽음, 고통, 기쁨, 비참함, 공포, 안도, 성공과 실패의 세계 또한 나름의 발명자와 개척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예술이요, 위대한 예술의 힘을 경험한 이들은 비록 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감 외에 또 하나의 욕감을 얻는다.

상처의 파임과 꿈의 빈곤으로 시달리는 사회를 무엇이 구원할 것인가

까닭에 우리는 거둬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실업자들 속에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거리에서 굶주리는 부랑아들을 보면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방황하는, 불이익당하는, 버려져 있는 모든 약자들 속에서도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부유한 이들만이 예술을 향유하는 것만큼 심각한 양극화가 어디 있는가. 예술 활동은 한없는 소비로 보이지만, 단순히 대중이 일하고 세금을 내고 난 후에 기분전환으로 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 우리가 완전히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시장경제는 예술이 스스로의 힘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찾고, 독서와 음악과 무용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창의적 사유를 훈련하며, 그것을 또 다른 재부의 생산에 이용하지만, 누구도 사후에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니, 예술이 사회에 안긴 창의적 사유의 제공자를 누구도 구별해낼 수 없다. 그래서 ‘시장실패’에 빠지는 예술에게 스스로 시장에서 살아남길 바라는 것은 예술이 예술이기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본디 ‘세계를 향한 개인의 고독한 외침’이었던 예술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자꾸만 오락과 유희의 세계로 이탈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한, 사회는 부를 늘리기 위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예술

은 그러한 사회를 의미 있는 것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부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 예술적 낭비의 정당성은 바로 이 '사회를 구원하는 힘'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결의

2005년 9월, 참여정부는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진흥'이라는 어휘가 사라진 자리에 '위원'이라는 어휘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변화는 크다. 그것은 우선, 체도의 성격을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바꾸었다. 그에 따라 예술현장이 '행정의 대상'에서 '동시적 주체'로 승격되고, 조직의 위상도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에 대한 관리처'로 자리매김 되었다. 조직의 역할은 "시혜자에서 매니저"로 변하고 있으며, 사업의 방향성은 단순 기금지원 방식에서 환경조성 방식으로 재조정되는 길을 밟는 중이다.

우리는 이것이 지난 몇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통되게 약속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예술정책"의 실체요 필요조건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조건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술을 성장시키는 힘은 예술의 내부에서 솟구쳐 나온다. 나무가 자라면서 줄기를 뺏는 것을 외부의 그 무엇이 조절하거나 조종할 수 없듯이 예술 역시 공권력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자기를 지탱해주는 사회를 위하여 예술의 전개과정, 미학적 엘리트의 형성, 예술경향들의 분화와 예술현장의 지형도를 검토,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 시대의 예술을 변명으로 이끈다.

바로 이와 같은 충분조건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예술을 국민의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계획과 비전을 내놓는다. 국민 다수가 예술의 능력을 경험하고 창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된 안을 구상하여 제출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뜻있는 기업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할 이웃들, 여러 예술가와 단체, 문화 시민이 우리의 이 뜨거운 노정에 함께하기를 요청한다.

2006년 4월 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

【미션과 비전】

임 무(MISSION)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있는 삶을 누리게 함



비 전 (ARKO VISION 2010)

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 사회 구현



핵심가치

활기찬 예술현장
(예술 중심)

삶을 채우는 예술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여는 예술
(미래 지향)

예술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
(Creativity)

예술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Enrichment)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
(Diversity)



예술인과 함께하며, 모두에게 신뢰받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에 대하여

□ 정책의 대상

새롭게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책의 중심을 ‘예술’에 두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란 직업적으로 훈련된 예술가들의 전유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지상의 모든 존재는 예술 활동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술의 영역에서 창조자와 수용자는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서로 층위를 달리하는 생비자(Prosumer; 생산자이자 소비자)와 같다. 시민대중은 예술을 욕망하며 향유하는 주체이며 엘리트 예술가는 그들 속에서 전범(典範)을 실현한 성취자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란, 광의의 예술로 은유된 상업행위나 문화산업적 활동을 포괄할 만큼 무한 확장되는 것도 아니요, 과거에 존재했던 고착된 의미의 장르 개념에 갇히는 것도 아니다.

한 사회의 문화체계 안에서 가장 원초적인 생명활동인 ‘예술 창조’의 영역이 고갈되면 ‘문화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문화적 자원은 소진된다. 새로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당대문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예술이 보다 건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개선해갈 것이다.

□ 사회의 발전과 예술의 위치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근대적 가치 기준에 의한 계량화와 도식화를 척도로 삼아 예술을 사회발전의 부차적 산물로 취급해왔다. 예술을 삶의 필수적 요소가 아닌 부가적 요소, 심지어는 사치나 낭비의 차원으로 이해해 온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세기를 맞으면서 예술의 가치는 나날이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근대문명의 기반이었던 물질적 재부들은 정치와 경제 발전의 효율성 속에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존재적 각성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 불행’ 앞에서 무기력하였다. 예술은 ‘문제적 현실’을 만인 앞에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예술은 인간이 탐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점을 향해 열려 있는, 인간의 상상력이 시도하는 인식과 사유의 도약대이며, 기성의 사상과 감정의 틀을 반성하고 변화시킴으

로써 문화의 지평을 새로이 열고 넓히는 세계 창조의 원동력이다.

□ 삶이 성숙한 사회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둔 자리에서 21세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정제되지 못한 현실, 균형 잡히지 못한 사고, 세련되지 못한 행동양식과 미숙한 관계들로 인해 야기되는 술한 갈등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리 사회의 이 같은 모자람은 무엇보다도 삶의 안팎에서 일구어야 하는 정서적 성숙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며, 그러한 성숙은 진지한 예술의 창조와 향유를 통해 획득될 것이다. 인간은 예술을 통해 삶의 내면과 실재가 고양되고 세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술의 위기와 문화적 가치

근년 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거론되는 '예술의 위기'는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넘어 '예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위기론의 본질이다. 이는 예술의 위기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예술 현장은 지금 폭넓은 향유층의 상실로 사회적 소통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타 영역과의 지원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예술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로서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성찰하게 하며 사회를 근원적으로 풍부하게 한다.

□ 풍요로운 삶이 있는 사회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졌던 문화예술정책 논의 과정에서 술하게 역설된 것처럼 현대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창의성에서 솟아나고 있다. 새로운 상상력이라 할 수 있는 창의성에서 비롯하지 않고서는 현실의 근본적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예술은 그 창의성을 직접적으로 고양시킬 가장 유력한 형식이다. 창의력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예술은 현실 개혁과 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인간다운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어느 공동체이든 전망의 최종 목표는 구성원 전체의 풍요와 행복이다. 우

리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동체는 시민사회이며 이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삶을 집약하고 관리하며 재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당면한 한국 현실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의 틀을 탈피하면서 새로운 한국 미래상의 정립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은 창조적 생활을 통해 풍요로운 삶이 영위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 과거 사업에 대한 반성

새롭게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제 'ARKO 비전 2010'의 실현을 위해 과거 문예진흥원 시절의 한계를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설정한다.

첫째, 예술의 정책과 행정이 일방 회로에 갇혀 있었다.

과거의 문예진흥원은 권위주의 시대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예술 지원사업이 '시혜와 배려'의 체취가 강했다. 그러나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단일화되고 폐쇄적인 행정은 지양되어야 했다. 예술행정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시적 주체'를 형성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책과 비전이 결여된 단순 기금지원 기구'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의한 기초예술 활성화 기구'로 재탄생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둘째, 지원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분명하였다.

예술 관련 사업에 있어 성과 목표 설정의 어려움은 사업 목표를 배제하는 경향을 낳았다. 그로 인해 형식에 치우친 공정분배나 퍼주기 식의 사업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업 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도 정책 지침이나 방향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심의와 평가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였다.

셋째, 창작-매개-향수의 선순환 고리를 분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술 창작품의 소통 구조는 일반적인 상품 소비재의 유통과 다르다. 예술의 특성에 따라 즉시 매개되어 소비자의 향유와 직결되는 경우도 있고 상품소비와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까닭에 예술의 창작과 매개, 향유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식되며 지원정책 역시 그런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예술 정책은 이들을 분리하고 각각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창작과 매개, 향유가 선순환적 고리로 발전하는 데 효율성을 얻

지 못하였다.

넷째, 작품 위주의 양적 지원 정책으로 예술의 자생력을 약화시켰다.

그동안 지원 정책의 핵심은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있었으며 작품 생산량의 증가에 주력해왔다. 물량 위주의 지원은 지원을 위한 작품 혹은 지원에 의한 작품이 생산되는 폐단을 낳았으며, 자발적 창조성이 결여된 작품 양산과 질적 성장의 부진, 향유층과의 단절 등 예술현장의 자생성을 저하시켰다.

다섯째, 미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여 거시적인 정책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눈앞에 당면한 요구와 미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예술현장 전반을 관통하는 중장기정책을 생산하는데 미흡함으로써, 예술의 다양한 발전과 실험적 도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을 창조할 토양을 육성시키지 못하였다.

2.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비전 2010

□ 비전 2010이 지향하는 핵심가치

2005년 발족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힘찬 믿음 속에서 앞으로의 5년 동안 우리가 실현해 나아가야 할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을 “**예술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 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예술 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
- 예술 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

예술 활동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사회 (Creativity)

예술현장을 활기차게 펼침으로써 예술 창작이 사회적으로 공명되고 존중되고 널리 기려지는 사회 분위기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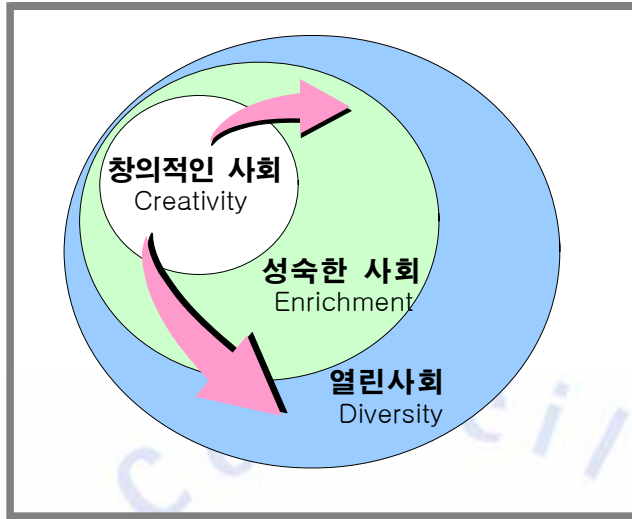
예술 작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숙한 사회 (Enrichment)

예술이 삶을 채움으로써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예술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속에 예술이 살아 숨쉬며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피어나는 열린 사회 (Diversity)

창작의 자유로운 실험, 새로운 예술 창작자의 출연, 모험적인 예술정신으로 창조된 예술의 다양성이 활발하게 피어나며, 발달한 예술에서 발원하는 문화적 가치가 제공하는 삶의 풍요를 지속적으로 대물림하는 사회를 구축한다.

【비전 : 예술을 통한 C·E·D 구현】



□ 예술을 통해 창의적이고 성숙하며 열린 사회 구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은 예술을 통해 창의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예술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며 창의성은 사회발전의 핵심가치이다. 예술위원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표현과 자유로운 상상력, 실험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술을 통해 도울 것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교육적, 지역적, 직업적 격차에서 벗어지는 소외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누구나 예술작품을 향유하고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여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평등한 사회를 가꾸어갈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예술은 민족 공동체의 귀중한 유산으로 보존·전승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도전과 모험의 정신에 의해 새로운 형식으로 변혁 창조된다. 예술은 당대 문화적 가치의 정수를 담아내는 한편, 끊임없이 새로운 정신을 추구함으로써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로서 '창의성 확대', '성숙성 증진', '다양성 확보'등 3가지 영역을 예술가의 활동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인류 사회

의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예술위원회의 새로운 비전과 사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태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예술가의 창작을 돕고 예술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지원 대상의 명확한 파악과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가운데 견인될 수 있다. 그간의 예술지원이 예술 작품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술지원정책에서 예술 인력이라는 용어는 낮설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동안의 예술지원이 작품 또는 작품 생산에 맞추어짐으로써 양적 팽창에 비한 질적 저하와 생산 과잉에 비한 향유 부재라는 왜곡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예술은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탄생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예술인과 전문 인력의 건강한 창의력과 모색에 기반하여 탄생되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비전 실현을 위해 예술 인력과 단체에 대한 관심을 통해 예술가의 성장을 돕는 정책과 예술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 관리하는 정책에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예술작품과 그 향수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예술에서 발원된 문화적 가치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해 획득되는 풍요로움은 결국 정치적·경제적 이득이나 효율보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정신적 태도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립된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진 가족의 해체, 이주노동자 차별, 사상적 갈등, 빈부의 격차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제반 문제는 정치적·경제적 노력만으로는 완치할 수 없으며 정신적 태도, 즉 감성적 토대의 기반하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예술이 문화향유의 빈부간의 양극화, 지역간의 양극화가 불러온 상대적 박탈감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살아 있는 예술은 인간 사회의 갖가지 벽을 무너뜨리고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현실화하며 번영과 발전의 보람을 함께 누리도록 계

몽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은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원의 중앙집중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예술이 사회 통합의 내적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미래의 예술을 위해 다원적이고 실험적인 형식에 주목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 실현은 전통과 품격을 지닌 기성 예술을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술은 창조적 열망에서 비롯된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 생명력이 획득되며, 이럼으로써 살아 있는 예술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방기하는 인간적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되살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르 중심의 제도적이고 도식화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예술의 다양성을 무엇보다 중시할 것이며, 예술의 다원적 영역과 실험예술을 배려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를 넘어 미래의 예술까지 내다보고 장려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활동을 자임할 것이다.

넷째, 기관의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이웃 문화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구호와 정책의 난발에 의해 성취되기보다는 정부의 타 부처 혹은 기관과의 협력과 정책 교류를 통해 진전되고 증폭된다. 특히, 관민의 유사 기관 혹은 지역 기구간에 예술 지원 정책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예술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강화될 횡적 종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예술위원회, 공공문화예술기관, 민간재단, 기업체 등과의 유기적 정책 교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나아가 예술의 흐름이 넘나드는 국제적 예술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연계해나갈 것이다.

다섯째,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현장성을 담보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의 결정적 예술 기관이자 여타 문화단체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실이 없는 정책의 기획은 예술 현장을 왜곡하며, 그러한 정책의 집행은 예술 현장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업은 지원 정책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현장성 위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통한 예술현장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유효한 정

책의 개발과 집행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정책 집행자로서만 멈추지 않고 한국의 문화예술을 관리하는 진정한 매니저로서 역할하기 위해 예술 행정의 서비스화를 도모할 것이다.

□ 예술위원회의 역할

예술위원회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예술의 창조적 열정 고양

- 창조적인 기초예술작품의 제작, 표현, 발표를 지원한다.
- 예술의 뛰어난 성과를 격려한다.
- 예술가의 탐구, 자료 개발, 방법의 발견과 실험을 후원한다.
- 예술의 주류 장르를 존중하면서 전위적·다원적·주변적 작업도 주목한다.

2. 예술의 문화적 향수권 제고

- 모든 시민들이 예술과 문화의 성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예술과 문화의 성취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적 권리로 제공되도록 한다.
- 예술은 모두가 지역적, 직업적, 세대적, 신체적 불평등을 넘어 균등하게 향유되도록 지원한다.
- 예술향수권은 소외·불우 집단에게도 보장되도록 후원한다.

3. 예술의 문화적 매개 활성화

- 예술 작품과 향수 집단을 연계할 인적·물적 매개체를 지원 육성한다.
- 향수 집단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할 교육을 강화한다.
- 문화예술공간을 확장하며 문화 콘텐츠 개발·제공에 노력한다.
- 예술가들과 향수층의 공적 단체를 지원하며 그들의 사업을 후원한다.

4. 보존과 교류

- 예술가치의 발굴, 보존, 개발, 표현을 지원한다.
- 외국과의 문화 예술 교류를 촉진하고 인적 유대를 지원한다.
- 남북간의 문화 교류와 지원에 노력한다.

□ 운영원칙

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갖는다.

1. 지원 사업 전반을 위하여

- 문화예술의 하드웨어 건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로 구별하고 위원회는 문화 공간의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에 주력한다.
- 지역적, 타 민간적 연관 문예후원기관과 성격을 구분하면서 제휴 협력한다.
- 위원회의 지원은 창작, 매개, 향수 및 교류-보존의 네 부문에 적절한 배분 원칙을 마련한다.
- 지원의 원칙에서 선택과 집중을 지향한다.
- 단발적 지원보다는 연쇄 파급적인 효과 개발을 중시한다.
- 남북간, 국제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한다.
- 교육, 학문, 사상 등 인접한 가치 창조 작업과의 연계에 주목한다.

2. 예술 창작 고양을 위하여

- 예술 작품에 대한 후원에 주력함으로써 그 후원을 통해 예술가의 의욕을 고취한다.
- 시장 취약의 기초 예술 지원에 집중한다.
- 예술가의 창작 지원은 개인적, 집단적 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 연도에 구애되지 않으며 계기성 사업에도 대처한다.
- 예술 작품의 평가는 사전, 사후로 창작 작업 성격에 따라 이루어진다.
- 지원은 보상의 성격을 지양한다.

3. 예술 향수 집단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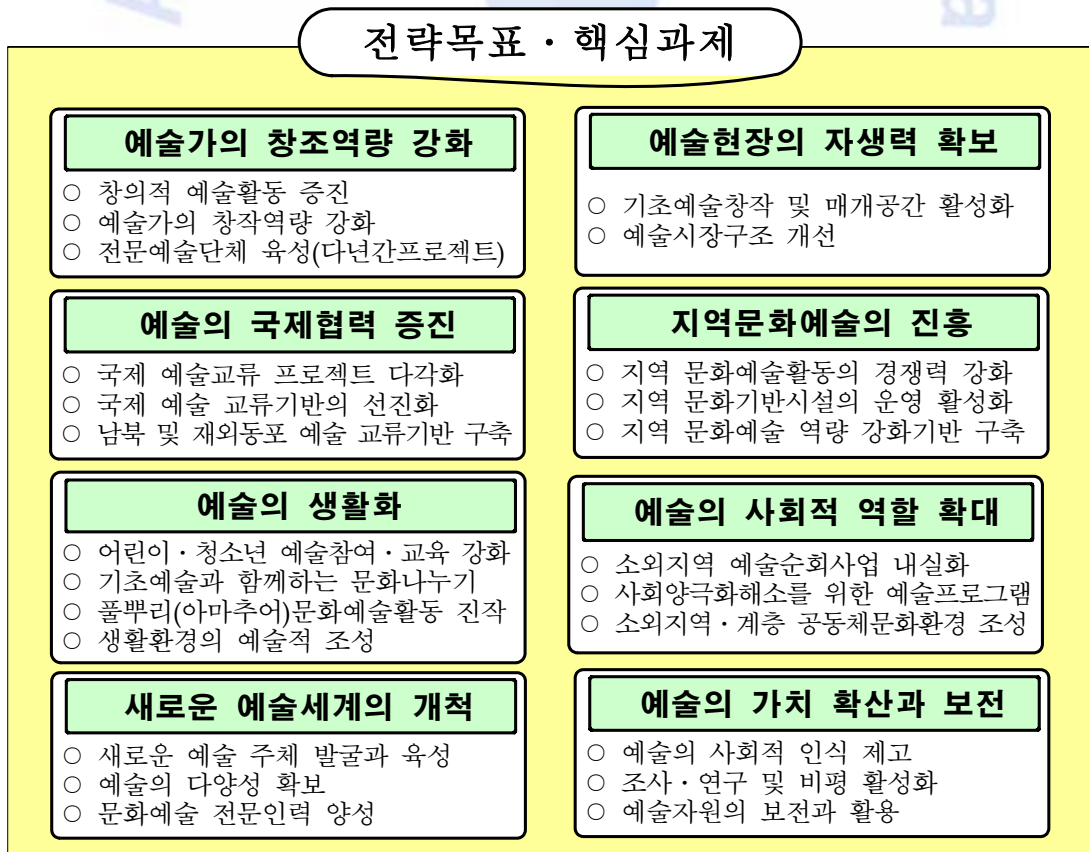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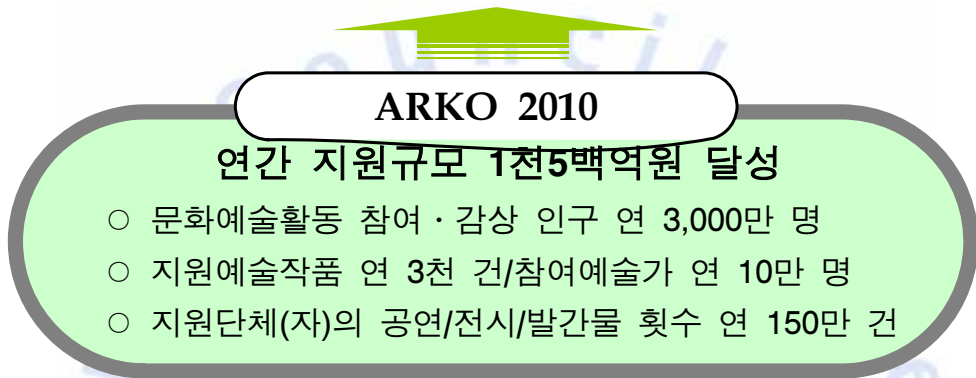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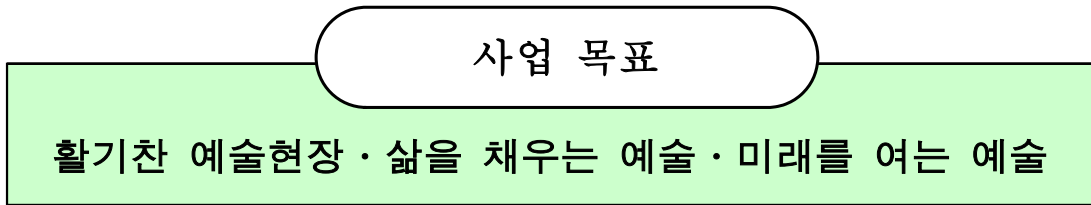
- 예술 작품 향수 인구를 개발, 유인, 참여토록 도모한다.
- 예술 작품의 향수를 문화 복지적 측면에서 배려한다.
-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 등 향수 집단의 성격에 대응하여 문화 향수 기회를 다양화한다.
- 예술 창작이 벽지, 특수지역으로 찾아가는 적극적 향수 제공 기회를 마련한다.
- 향수 집단의 반응의 수용을 활성화한다.
- 예술과 작품의 사회 및 학교 교육에서의 역할을 중시하며 예술 교육 기회를 확장한다.

4. 창작과 향수의 상생적 순환을 위하여

- 창작과 향수의 접점인 문화 공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제공, 배포에 노력한다.
- 창작과 향수를 순환케 하는 매개인력의 증가와 그 역할 강화를 수행한다.
- 매개인력의 연수, 재교육, 심사를 통해 자질 함양을 유도한다.
- 예술, 매개, 향수를 위한 단체의 유지와 활동을 지원한다.

3. 비전 2010 - 전략목표와 과제

□ 사업목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예술로부터 발원하는 문화적 가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창조적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 형성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력은, 예술이 생산되고 향유되며, 나아가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되는 제반 영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은 이러한 영역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여 비전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실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출되는 사업 목표는 <활기찬 예술현장> <삶을 채우는 예술> <미래를 여는 예술>이라는 세 개의 큰 틀로 집약된다.

1. 활기찬 예술현장 — 예술의 창조적 열정을 높인다.
2. 삶을 채우는 예술 — 예술의 문화적 성과를 펼친다.
3. 미래를 여는 예술 — 예술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한다.

□ 활기찬 예술현장 : “예술의 창조적 열정을 높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 실현은 예술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는 만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정책의 정체성은 예술현장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예술 정책의 본질은 진지하고 수준 높은 예술이 창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써 향유자를 감동시키며 나아가 구성원 전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예술정책의 출발은 예술과 예술가, 예술단체를 비롯한 예술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의적인 예술현장을 만들기 위해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가와 예술 단체는 예술정책의 핵심인 예술 탄생의 담당자이다. 이들의 창조적 역량이 강화시키는 것은 예술적 융성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일이다.

이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술은 미학적 품격과 위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 작품의 양적 팽창과 이에 반하는 질적 저하는 예술 현상을 왜곡시켜 예술현장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예술은 그 자체로서 시장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예술이 자연스럽게 향유층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예술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유기체로서의 예술은 제도와 국경을 뛰어넘어 교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 감수성을 획득하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이 생산될 수 있다. 남북 교류를 통한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정체성을 획득하는 한편,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원적 가치체계를 긍정적으로 흡수하는 정신적 태도를 예술 정책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은 공동체적 생활방식 속에서 나름의 형식과 내용을 입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지역 문화예술진흥은 자체로서 우리 문화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풍부히 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기회가 지역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 삶을 채우는 예술 : “예술의 문화적 성과를 펼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 실현은 공동체 구성원의 염원을 예술적으로 완성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이 사회구성원들의 생활 속에 유효하게 생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술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 때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존엄이 완성되며, 그것은 공공선이라는 예술의 지향과 함께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은 예술의 가치가 국민 개개인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며 예술이라는 공공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예술의 생활화>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예술의 생활화

경제성장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던 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으로 삶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무관심을 양산해냈다. 국민 전체의 예술 향유 수준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예술 정책의 방향은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쉽게 예술과 만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발전 위주의 국가 정책이 구성해놓은 생활환경은 경제적 효율성과 획일성의 관점에서 꾸며져 있다. 인간은 일차적 생존을 넘어 존엄한 문화적 생활양식을 필요로 한다. 풍요로운 삶은 효율 너머에 있는 미학적 가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활환경의 예술친화적 조성은 삶이 영위되는 시공간에 대한 미학적 반성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 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가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 성, 지역, 계층 등에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가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수자의 예술 향유권까지 섬세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 구조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문화 향유의 양극화 병폐를 심하게 앓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 정책은 소수자와 소외자에 대한 효율적인 예술 향유 방법을 구축하여야 한다.

□ 미래를 여는 예술 : “예술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 실현은 예술에서 비롯된 창조적 열망이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 끝없이 되살아나며, 시대와 함께 숨쉬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지원 정책은 예술의 정신적 가치를 즐기고 재생산하여 그 미래를 대낮처럼 밝혀가는 데 맞춰져야 한다. 예술을 통해 획득되는 삶의 풍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예술의 미래는 미래 예술의 담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데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보장은 끊임없이 도

전하는 예술의 정신적 가치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새로운 예술 세계의 개척>과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을 세부 목표로 추진하고자 한다.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의 미래는 젊은 예술가들의 미학적 도전에 의해 개척되며 매개자들의 창조적 개발을 통해 완성된다. 기성 장르 예술 중심의 관성화된 지원정책 속에 방기된 신진예술가들과 매개 인력의 육성은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신진예술가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사장되는 예술 현장은 생명력을 보장받지 못하며, 아무리 좋은 예술 공간과 예술 제도도 예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매개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으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예술의 건강한 육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황폐화는 문화적 가치의 보편화를 차단한다. 예술이 견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창조적 생활과 풍요로운 삶은 예술을 둘러싼 환경, 즉 문화기반이 구축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며, 그것은 예술의 중요성과 문화의 가치에 대한 사회 제반의 인식이 상호 영향 아래 동반 발전함으로써 예술의 정신적 가치를 풍요롭게 할 때 가능한 것이다.

4. 경영목표

□ 경영전략과 목표



□ 모두에게 신뢰받는 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예술인 중심의 민간기구로서 국가의 예술을 관리하고 개척하는 국가 최고의 예술 기관이다.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의 예술 행정 기구의 위상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신뢰는 기관의 위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관의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지원체제 혁신> <문화시설 운영혁신> <문화예술지원서비스경영체제 구축> <문화예술재원개발>이라는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지원체제 혁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재단 및 지역예술위원회 등 타 지원주체와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원구조와 평가체계를 재편하여 새로운 지원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지원시설 운영혁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극장, 미술관, 문화예술연수원, 예술정보관 등 지원시설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운영 목적에 맞도록 책임경영체를 도입하거나 기능을 특화하는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서비스 경영조직 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책의 단순한 집행기구 또는 지원금의 배분 기구로 머물지 않고, 재정·정보·시설·인적자원·연구조사 등 다각적인 예술자원을 활용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술행정의 전문화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전방위적 지원기구로 태어나고자 한다.

문화예술 재원 개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다양한 수익사업 및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재원을 개발코자 한다.

□ 전략목표 · 핵심과제 총괄표(사업 부문)

비전영역	전략목표	핵심과제		
창의적인 사회 ↓ 활기찬 예술현장 'Creativity'	①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 창의적 예술활동 증진		
		2. 예술가의 창작 역량강화		
		3. 전문예술단체 육성(다년간프로젝트)		
	②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4. 기초예술 창작 및 매개공간 활성화		
		5. 예술시장 구조 개선		
	③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6. 국제 예술교류 프로젝트 다각화		
		7. 국제 예술 교류기반의 선진화		
		8.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 교류기반 구축		
	④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9.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경쟁력 강화		
		10.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11. 지역 문화예술역량 강화기반 구축		
소계		4개 전략목표 11개 핵심과제		
성숙한 사회 ↓ 삶을 채우는 예술 'Enrichment'	⑤ 예술의 생활화	12. 어린이 청소년 예술참여·교육 강화		
		13.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누기 활성화		
		14. 풀뿌리(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진작		
		15. 생활환경의 예술적 조성		
	⑥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16. 소외지역 예술순회사업 내실화		
		17.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술프로그램 확대		
		18. 소외지역·계층 공동체 문화환경 조성		
소계		2개 전략목표 7개 핵심과제		
열린 사회 ↓ 미래를 여는 예술 'Diversity'	⑦ 새로운 예술 세계의 개척	19. 새로운 예술 주제 발굴과 육성		
		20. 예술의 다양성 확보		
		21.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⑧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22.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23. 조사·연구 및 비평 활성화		
		24. 예술자원의 보전과 활용		
		소계		2개 전략목표 6개 핵심과제
		계		3대 목표, 8개 전략목표 24개 핵심과제

□ 전략목표 · 핵심과제 총괄표 (경영 부문)

비전영역	전략목표	핵심과제
모두에게 신뢰받는 예술위원회 ↓ 신뢰경영	① 문화예술 지원체계 혁신	1. 지원구조 및 평가체계 혁신
		2. 문화예술 지원기구간 협력 강화
	② 문화예술시설 운영 혁신	3. 극장·미술관 책임경영제 도입
		4. 연수원·자료관 기능 전문화
	③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 경영체제 구축	5. 예술행정의 단계적 전문화(조직·인사)
		6. 문화예술 종합 지원서비스센터 구축
	④ 문화예술 자원개발	7. 민간기부금 확대 및 자체 수익사업 개발
8.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계	4대 전략목표 8개 핵심과제	
사업 및 경영부문 총계	4대 목표, 12개 전략목표, 32개 핵심과제	

□ 중단기전략계획 참여 인사

□ 위원회

-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한명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 국립국악원장)
- 김언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길사 대표)
-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공주대 교수)
- 김현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 강준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 심재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사무처장)
- 박신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경희대 교수)
- 정완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앙대 교수)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 충북민예총 사무처장)
-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남대 교수)

○ 비전수립TF 위원

강준혁, 박신의, 박종관, 전효관

□ 소위원회

문학

- 이시영 (문학위원회 위원장, 시인)
- 강영숙 (소설가)
-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학평론가)
- 김이구 (아동문학평론가)
- 김정환 (시인)
- 나희덕 (시인, 조선대 교수)
- 서영채 (문학평론가, 한신대 교수)
- 성석제 (소설가)
- 은희경 (소설가)
- 최영철 (시인)

시각예술

김정현 (시각예술위원회 위원장, 공주대 교수)

강태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공성훈 (성균관대 교수)

백기영 (경기문화재단 교육기획팀 전문위원)

안상수 (홍익대 교수)

안인기 (미술평론가)

양지연 (동덕여대 교수)

이영준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이종빈 (경희대 교수)

이지호 (대전시립미술관장)

연극

이강백 (연극위원회 위원장, 서울예대 교수)

김명화 (희극작가, 평론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 극단 놀이패 열림터, 상상극회 대표)

심재찬 (연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사무처장)

이상우 (연출가)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이종국 (전국연극협의회 회장)

임진택 (연출가)

무용

김현자 (무용위원회 위원장)

김공수 (중앙대 교수)

김말복 (이화여대 교수)

김민희 (한양대 교수, 한국발레협회 회장)

박명숙 (경희대 교수)

성기숙 (무용평론가)

손인영 (나우무용단 대표)

이종호 (무용평론가, 연합통신 문화부장)

정은혜 (충남대 교수)

정의숙 (성균관대 교수)

음악

정완규 (음악위원회 위원장)
박정원 (한양대 교수)
백영은 (단국대 교수)
유영재 (한세대 교수)
윤경화 (연세대 강사)
윤승현 (추계예대 강사, 한국작곡가협회 이사)
이나리메 (한양대 강사)
이석렬 (음악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이혜전 (숙명여대 교수)
함일규 (중앙대 교수)

전통예술

한명희 (전통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한울림예술단 예술감독)
김승근 (서울대 교수)
노재명 (국악음반박물관장, 음반연구가)
박영규 (용인대 교수)
송혜진 (숙명여대 교수)
양성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원 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장경희 (한서대 교수)
지애리 (가야금 연주자, 서울대 강사)
진옥섭 (무용평론가)
현경채 (국악평론가)

다원예술

전효관 (다원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소연 (연극평론가)
김준기 (전시기획자)
박준흠 (대중음악·문화 비평웹진 가슴 편집장)
원영오 (극단 노뜰 대표)
이규석 (예술경영지원센터 소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남북및국제문화교류

- 박신의 (남북및국제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 김성원 (전시기획자)
- 김세준 (숙명여대 교수)
- 김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무용평론가)
- 김형수 (소설가, 평론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 박인배 (연출가, 극단 현장 대표)
- 양성원 (첼리스트, 연세대 교수)
- 주재연 (난장컬처스 대표)
-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
- 허 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지역문화

- 박종관 (지역문화위원회 위원장)
- 김기봉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 나호열 (경희대 사회교육원 교수, 예총 정책연구위원)
- 박승희 (경주 위덕대 교수)
- 서영수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 양미경 (제주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 이춘아 (대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 전고필 (광주 북구 문화의집 상임위원)
-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총장)
- 함한희 (전북대 교수)

□ 사무처

- 정책실 : 양효석(정책실장), 박두현(정책연구팀장), 류재수(정책연구팀), 신용목(홍보미디어팀)
- 예술진흥실 : 정승태(예술진흥실장), 박상언(문학팀장), 박명학(시각예술팀장), 김영중(공연예술팀장), 이종원(지원총괄팀장), 황진수(무용), 임천식(음악), 김성량(연극), 이제승(전통예술), 정해영(다원예술)
- 문화협력실 : 김창욱(문화협력실장), 고준환(사회공헌팀장), 박천수(지역문화팀장), 장정진(국제교류팀장)

□ 자문

김형수 (소설가, 평론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염신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 비전수립TF기획실무)



발행인 :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전화번호 : 02-760-4531

발행일 : 2006년 4월 5일

편집디자인 : 간텍스트 ☎

인쇄 : 문덕인쇄 ☎
